

#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 생활여건 개선

도시새뜰마을 공모선정  
국비 34억 등 47억 확보  
이야기밸전소 등 조성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 된다.

전주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 도시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이 대상지 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팔복동 준공업지역 내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선정에 이은 두 번째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전주도시혁신센터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다.

이에 따라 승암마을은 윤리부터 오는 2019년까지 국비 34억 등 총 47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승암마을은 일제강점기 철도가 개설되면서 승암산 기슭에 도시 빙민들이 삼십오오 모여들어 건축물을 지으면서 형성된 주거지다. 지난 2008년 지역구단위계획을 통해 자연취약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 공원지역으로 둘여 주택 개보수가 어려워 노후주택 및 폐공기가 급증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시는 산사태와 붕괴 위험이 있는 비탈면과 노후주택 등을 점검하고 승암마을 주민들이 직접 쌓은 돌담을 재정비해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마을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주택 개보수 및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성공단 종단·사드배치 논의' 철회하라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전북본부가 15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와 사드배치 논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공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와 공동연장창고 등의 기반시설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승암마을을 '마을공동발전소'로 제소득층 어너지 자립

마을 공동체와 연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해 주민들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와 김윤덕 의원은 지난 2014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승암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새뜰마을을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민·관·정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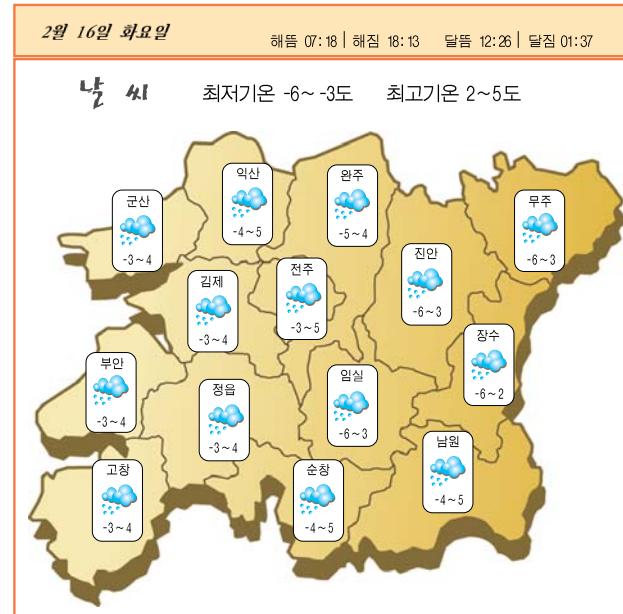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새뜰마을 사업이 완료되면 승암마을의 취약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뜰마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달동네 등 주거취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는 총 44개 지역이 신청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승암마을 등 22곳이 최종 확정됐다.

/김영재 기자



## 원광대 건축학과, 건축학교육인증 획득

원광대학교는 건축학과가 전북도 최초로 '건축학교육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축학교육인증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건축설계 시장 개방 원칙에 따라 건축학 교육의 국제적 상호 인정을 위해 도입됐다.

또 캠벌리협약(Canberra Accord)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세계건축가연맹(UNESCO-UIA), 건축학교육인증기구(UNCAE)에서 인정하는 국제적인 건축학교육프로그램 인증이다.

최종 인증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E)에서 매년 자격을 갖춘 대학을 평가해 부여한다. 원광대 건축학과는 지난해 10월 학위·교과과정, 학생정보, 인적자원·운용체계, 물리적 지원, 연구활동, 학

생 수행평가기준 등 실사를 받았다. 이 과정을 거친 원광대 건축학과는 교과과정 정비를 비롯해 건축학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시설환경 및 교육 여건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인증을 획득해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 또는 건축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광대 건축학과는 졸업생들이 캠벌리협약 회원국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됨에 따라 해외 취업

과 유학 등 졸업 후 국내·외 진출도 유리해졌다.

##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존치교실 돌려달라"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부모위원회는 15일 "세월호 희생학생들의 교실 10개(존치교실)를 재학생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단원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1~2학년 회장·반대표, 봉사단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회는 이날 "단원고 교육기숙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은 19일까지 확답을 재시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학부모위원회는 "일부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10개의 교실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정 교육감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능력없는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존치교실 앞에서는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억압, 죄책감, 표현의 자유가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워 민족 학교와 동일한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단원고 교육이 정상화되고,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구하며 민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우 올해 단원고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일체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단원고에는 지난 3일 신입생 301명이 배정돼 12개 교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희생학생 존치교실 때문에 4개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박용주기자

## 초등생 성장 평가제, 정형화된 지침 안돼

김승환 교육감 "성장 기록 권한과 책임 100% 담임교사에게 줘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올해 '초등 성장평가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교육청 차원의 정형화된 지침을 보내지 말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성장평가제의 핵심은 초등학생들의 성장 기록의 권한과 책임을 100% 담임교사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초등 성장평가제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발달과 성

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학기부터 실시되는 '전북형 평가제'다.

김 교육감은 또 평가 결과에 대한 기록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새학기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한 미당에, 획일화된 지침을 내려보낼 경우 변형된 일제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우려다.

김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초등 성장평가제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라며 "이해를 둘러 위해 예시를 제시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예시를

발표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유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일부 시도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데 대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의 1년 예산은 정부가 편성, 재출판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의결해 확정된다. 지방은 미찬 가지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고 시도의회가 심의·의결해야 완성된다"면서 "이에 대해 법률적 책임, 특히 형사책임을 물는다면 국회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의원들,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의 의장을 모두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http://www.jeonju.go.kr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

한지 수의, 납골함  
한지벽지, 장판  
수제한지막순지, 색한지, 공예용지, 예술지, 예담지, 예전지  
응용한지인간지, 대레지, 환희지, 순수운용지  
아토피피부염,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한지비누, 덕분말팩  
각종 한지사 제품 넥타이, 양말, 지갑, 손수건, 러너 등

천년을 숨 쉬는 **전주한지**

전오백 지천년 (絹五百 紙千年)이라는 말처럼 한지는 질기다  
전주한지는 만지면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다  
전주한지는 통기성이 좋다  
전주한지는 보온성이 좋다